

성서와 과학의 우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정모 _ 《바이블 사이언스》 저자



기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과 과목이 어렵고 재미없기 때문이고 대학 가기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떠드는 언론의 영향을 받아 이공계를 기피하게 되는 지도 모르겠다.

또 우리는 많은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강박관념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때가 많다. 예를 들면 “과학책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한다”, “공식과 풀이로 외우는 수학의 시대는 끝났

《바이블 사이언스》
이정모 지음 | 휘슬러 | 300쪽 | 값 12,800원

다”, “심심풀이 삼아 읽는 것만으로도 원리를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와 같은 외침들이다. 과연 그런 책이 있던가?

그런 책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은 절대로 쉬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 년 간 과학만을 공부한 필자에게도 과학은 정말 어렵다. 비단 과학만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철학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대부분의 분야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쉽지 않은 것을 쉽게 쓰겠는가? 쉽게 쓰여진 책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은 빼고 썼기 때문이다.

좋은 과학책은 이미 많이 있다. 과학만을 설명한 책도 있고, 문화현상 속에서 과학적 현상을 이끌어 낸 책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은 과학책을 잘 읽지 않는다. 이 때 생각해 낸 새로운 시도가 바로 《사이언스 시리즈》이다. 이번에는 문화현상 속으로 과학적 사실을 짚어지고 들어가 보자는 것이다. 청소년 독자는 《해리포터》, 《성서》, 《그리스·로마 신화》 혹은 《삼국지》를 읽는다. 이 이야기 틈 속에서 과학적 사실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 과학적 사실은 쉽지도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정작 따져보면 오해의 근거는 고려의 가치가 별로 없던 경우가 많다.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더욱이 그 오해가 집단적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편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회자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과학기술자들이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과학기술자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 보통의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여

않고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도 않다. 이야기를 읽다가 정말로 과학이 재미있고 흥미가 생긴다면, 이제 지금껏 나와 있는 그 좋은 책들을 찾아 읽으면 된다.

필자의 《바이블 사이언스》 역시 계속 발간되고 있는 《사이러스 시리즈》의 한 편이다. '성서'와 '과학'이란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유감이라면 대부분의 책들이 '창조냐 진화냐'라는 문제에 매달리고 또 성서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는 데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책들은 과학과 성서의 '불화'를 그 배경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불화의 원인은 과학에도 성서에도 있지 않다. 단지 인간에게 있을 뿐. 《바이블 사이언스》는 과학과 성서 사이의 '우정의 회복'을 작은 목적으로 삼는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초자연적인 것뿐 아니라 자연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일이니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다. '성서는 과학'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서를 실마리로 과학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다.

예컨대 독자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읽는다. 하지만 천지창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독자는 이 자리에서 우주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이론, 소립자 물리학, 모든 물질과 힘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만물이론 등을 접하게 된다. 대홍수에 따른 멸종을 막기 위해 노아가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태웠던 거대한 방주의 이야기는 엘니뇨와 라니뇨 등 현대의 기상이변, 지구 생물 100만 종의 유전자를 냉동보관하는 작업에 들어간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21세기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이어진다.

독자들은 이번에는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 부부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읽는다. 하지만 기적은 기적으로 남아 있다. 기적이 과학으로 설명되면 이미 기적이 아니지 않은가? 책은 이 자리에서 임신과 출산의 일반 과학을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돌팔매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물리학으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바쳤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금과 방부제, 진통제의 과학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필자는 성경의 이야기를 물길 삼아 화학과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알기 쉽게

과학 이야기를 풀어낸다.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도 않다. 지은이는 때로는 약간의 오버를 한다. 여리고 성의 함락을 소리의 진동수와 공명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리고 성의 붕괴는 공명, 즉 서로 다른 두 물체의 진동수가 일치하면 진폭이 최대가 되는 현상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이다. 못 믿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준다. 1940년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협교가 가벼운 돌풍에 상관이 휘면서 붕괴한 사건이 바로 공명현상 때문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성서를 과학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은 부질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 사건은 인간의 과학이 아닌 신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의 호기심은 성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예수는 정확히 언제 태어났을까, 동방박사들은 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 예수의 비유들, 예를 들어 쟁맛을 잃은 소금 비유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성서시대의 색깔은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방법은 현재와는 어떻게 다르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천지창조 이야기로 시작된 책은 복제인간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아마도 성서의 과학이므로 복제인간의 윤리적 문제점을 다루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 필자는 복제인간의 출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교회는 막연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복제인간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필자는 그 답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찾는다.

필자는 기독교 신자다. "성서와 과학은 서로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절대자 속에서 이뤄졌으며 언젠가는 다시 우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이 책을 썼다. 하지만 '믿음과 증명은 서로 다른 것이다. 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성서와 과학의 상호 부정 또는 무리한 화해를 모두 피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거부감 없이 동행할 수 있는 과학여행으로 독자를 이끌고자 했다. **✠**